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말씀을 읽어요.

읽을말씀

사도행전 10장 44~48절

외울말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0장 34절)

44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께서 내려 오셨습니다. 45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이방 사람에게까지 부어 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6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47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을 누군들 막을 수 있겠습니까?” ...

말씀을 기억해요.

*포인트

서로를 알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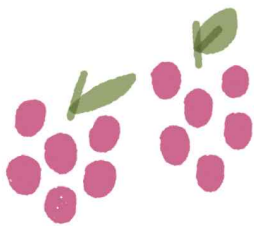
포인트익히기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보내셨음을 알고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임을 알게 한다.

적용활동

나는? 너는?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들과는 말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어느 날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방인이 왜 나를 찾아온거지?’ 걱정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저들을 따라 가거라. 내가 너에게 보내었노라.’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갔어요. 고넬료는 많은 친척,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는 그제서야 이방인들도 자신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심을 통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셨어요. 외모는 달라도, 혹시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임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어린이가 되어요.



말씀을 탐구해요.

- 1)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분은 누구인가요?
- 2)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3) 다음 말씀에 빈칸을 채우고, 함께 외워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은

사람의 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0장 34절)

